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20일 월요일 음 2월 1일 (8월)

백록담

기상정보

맑음



제주에 맑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3-5℃로, 낮 최고기온은 8-11℃로 예상된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precipitation forecast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moonrise/moonset, and day/night lengths.

식중독지수 주의, 감기가늘지수 주의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064-750-131> 내일 맑음 2/6℃, 모레 구름많음 4/11℃

월드뉴스

올해도 러-우전쟁 종전 요원 예상

“EIU 전쟁 장기화 교착 지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만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안에 평화협상을 통한 종전은 요원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19일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우크라이나 전쟁 : 러시아와 서방 관계의 단절'이란 제목의 백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인 전망을 내놓았다. EIU는 “평화협상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명운을 건 전쟁에 임하고 있으며, 올해 내에 어느 쪽도 양보를 해야 하는 종전안에 동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가 내민 협상안을 러시아가 이미 걸어찬 만큼, 양측이 향후 테이블에 마주 앉더라도 곡물 수출협정 정도로만 주제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먼저 EIU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불철 대공세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전쟁의 강도는 점차 낮아지고 이로 인해 양측이 전선에서 진퇴를 반복하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여부와 관련해서도 비관적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진 선희 행정사회부국장

시장 선거에 출마한 농민 후보에게 한 유권자가 묻는다. “내 고속 인터넷은 어떻게 해결 생각인가?” 이에 후보자가 수어로 답한다. “아무것도 안 해. 자네 농장은 서버에서 2km 넘게 떨어져 있지 않나. 고속 인터넷을 원하면 이사하라.” 후보는 거기다 이런 말을 덧붙인다. 현직 시장이 버릇을 잘못 들었고, 이 자리는 시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인지 고객 상담을 위한 게 아니라고.

영화 ‘미라클 벨리에’ (2014)의 한 장면이다. 지난해 미국 아카데미

4년 만에 열린 ‘시민과의 대화’

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3관왕을 차지한 ‘코다’의 원작이 된 프랑스 영화다. 음악을 매개로 농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청인 자녀의 성장기에 무게를 둔 작품이지만 주인공의 아버지가 가족 소유 농지와 숲을 망치려는 현 시장의 산업지구 조성 계획을 막겠다며 선거에 뛰어들어 비장애인과 경쟁하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실화에 기반해 픽션을 버무린 그 영화가 떠오른 건 지난 14일 제주도지사의 제주도 연두 방문에서다. 이튿날 서귀포시를 포함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두 행정사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였다. 제주시의 경우엔 각 부서를 통해 1차 산업 종사자에서 예술인까지 200명이 초청됐다.

지난 한 해 제주도 홈페이지 ‘도지사에 바란다’를 통해 500건 가까운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도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가 늘면서 연두 방문을 구태로 여기는 이들이 있지만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문답하는 ‘시민과의 대화’를 바라는 이들도 보였다. 실제 제주도 연두 방문에 참석했던 한 자영업자는 업계 애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제주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으나 끝내 만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다행히 이번엔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꺼냈지만 이마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꼭 하고 싶었던 말은 전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 제주도 연두 방문의 질문자는 총 19명으로 29건의 의견이 모였다. 주 최 측이 질문을 하자며 손을 든 사람들에게 모두 기회를 줬다고 해도 그렇게 아쉬움은 남는 듯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나온 여러 말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실행되는 지다. 그런 점에서 제주시가 올해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진행한 제

주시장의 26개 읍·면·동 연두 방문의 형식을 바꾼 것은 주목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재 관리 중인 최근 3년간의 읍·면·동 방문에서 제기된 1768건의 건의 사항에 대해 처리 현황을 설명한 뒤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그랬더니 매년 300건에 달했던 연두 방문 건의 사항이 올해는 2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읍·면·동별로 1건 정도인 셈인데 향후 매년 반복되는 질문과 요구 사항 대신에 지역 현안에 집중해 머리를 맞출 수 있는 장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다시 ‘미라클 벨리에’로 돌아가보자. 소견 발표장에서 유권자와 각을 세우는 농인 후보에 대해 청중들이 곧바로 불만을 드러냈지만 영화 말미엔 예상을 깨는 듯한 화면이 등장한다. 우리의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소신을 지키며 소통하는 위정자가 필요하다.

열린마당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세요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



김 달 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팀장

요즘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 시꺼먼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된 경유자동차들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경유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미세먼지 총 배출량의 92%를 차지해 자동차 중에서도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이유다.

이에 제주도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중에서 관능검사 적합 판결과 지정 공업사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을 완료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때 보조금 지원율은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를 기준으로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가 기본으로 지원되고, 폐차에 따른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50%가 추가로 지원되는데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경유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제주의 깨끗한 공기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 희 진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클린하우스에는 아무거나 갖다 놓아도 되는 줄 아는 분들이 꽤 많다. 이에 몇 가지 품목의 배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니 올바른 폐기물 배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클린하우스에 잘못 배출되는 품목들이 몇 있는데 그중 하나는 영농 폐기물이다. 영농 폐기물인 영농 폐비닐, 농약병, 비료 포대, 농약 봉지 등은 마을별로 설치돼 있는 영농 집하장에 버리면 된다. 그 외의 영농 폐기물은 남원매립장이나 색달매립장에 배출 가능하다. 그리고 쓰다 남은 농약 배출에 대해서

도 얘기하자면 남은 농약을 버릴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가 몇 있는데 남원읍은 남원1리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이다.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가구나 생활용품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는지,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채 그냥 배출하는 경우가 꽤 있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스티커는 읍면동사무소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소형 폐가전제품은 재활용도움센터에도 배출이 가능하다.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길이니 다들 올바른 폐기물 배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Advertisement for domestic products, featuring various plant varieties like Hanrabong, Cheonheung, and Redbong.

Advertisement for plant products, listing various types of plants and their prices.

Advertisement for Hanra Telecommunications, offering services like fiber optic installation and CCTV.

Advertisement for TI Information Technology, providing IT solutions and network services.